

서울책보고, 팝업스토어 전환... 헌책방 “성공할 수 없을 것”

위기의 공공헌책방

<下> 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시, 헌책방 33곳 철수 요청
낙후된 운영 개선 내세워 통보

헌책방들 “일방적이고 비현실적”



지난달 29일 한 시민이 서울시의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를 둘러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운영 실적이 낮은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헌책 판매’ 이미지를 탈피하기로 하고, 중고 도서 위탁 판매를 맡긴 서점 33곳에 철수를 요청했다. 헌책방 주인들이 당장 수천 권의 책을 가져다 둘 곳이 없고, 도난방지태그가 붙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으며 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도서관으로부터 입고된 서적을 모두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은 입점 서점들이 시의 불합리한 정책을 규탄하며 도서 회수 거부 입장을 내놨다.

전국책방협동조합·평화서점연합회 등 책보고 입점 서점들은 “과거 서울도서관은 도서 유통의 또 다른 축인 헌책방 업계가 침체된 것을 양지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문화 서울의 한 면모를 진작시키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서울책보고 사업을 설명하면서 헌책방에 적극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시기 책보고 운영의 어려

움을 들은 입점 서점들은 2021년 말 2차 재계약 때 판매 수수료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데 동의해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했다”면서 “근래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함께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서서히 다른 분야 도서로도 관심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중이었는데 한 번의 공청회나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도서 반품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도서 위탁 판매를 맡긴 서점들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시의 부조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중고 서적 반품 불가의사를 내비쳤다. 책방들은 ‘도난방지태그로 인한 상품 가치 하락’과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이유로 입고된 책들을 도로 가져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책보고 사업에 참여한 ‘공씨책방’의 사장 장화민 씨는 “책을 들 곳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다. 도난방지태그는 서울

책보고에서는 괜찮지만, 책방에 오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도서관들이 폐기 처분한 책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택 붙은 건 손님이 싫어해서 가격을 아주 싸게 책정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시는 약 1700만원을 들여 가격표 겸 도난방지태그 스티커를 떼서 책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40년 넘게 책방을 운영해온 A씨는 “도자기가 깨져 금이 가면 백만원 하던 게 만원도 못 받는 일이 생긴다”며 “스티커 떼면 100% 표시 하는데 어떤 바보가 그걸 가져가겠냐”고 따져 물었다.

입점 서점 중 하나인 ‘숨어있는 책’의 대표 노동환 씨는 “스티커를 떼는 건데 원상복구가 되겠느냐. 코팅이 울거나 찢어져 100% 회복되지 않는다. 코팅이 안 된 책은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갖

고 왔는데 이 상태면 1000~2000원짜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책보고에서 위탁 판매 중인 서점들은 시에 현 체제(헌책 판매 중심)에서 입고 방식 등을 개선해 운영하거나 책방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직접 책보고를 꾸려나가는 방법을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만약 해당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입고된 책을 전량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책보고 참여 서점들의 요구를 전부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소수의 서점이 공간에 책을 납품하며 판매하는 구조가 되면 슬럼프가 된다”면서 “지역 서점 중 헌책을 파는 일부 책방에만 서울시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 관장은 “헌책을 구매하는 방법이 YES24, 알라딘에서 당근마켓 등으로 바뀌며 판로 자체가 달라졌다. 세상이 변화하는데 계속 그분들이 고집 피운다고 해서 헌책방 위주로 돌아가면 이 책문화 공간이 활성화되겠느냐”면서 “서울의 600여 개 서점이 좋은 제안을 갖고 서울책보고에서 책을 팔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하는 거다. 소수 33개(서울책보고와 판매 대행 계약을 맺은 서점 수), 그중에서도 서울 내 25개 헌책방만 혜택을 보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시는 기존 헌책 판매 중심의 서울책보고 운영 방식을 팝업스토어 형태로 바꿀 예정이다. 지금까지 33곳의 헌책방이 중고 서적을 파는 게 아닌 서점여

러 개가 돌아가며 일정 기간 헌책, 새책 구분 없이 보유한 도서들을 큐레이션(선별)해 판매하는 식이다.

오 관장은 “더현대 같은 백화점에서 서점 팝업스토어를 하는데 매출이 엄청나다. 단순히 책 판매가 아니라 경험이 같이 녹아나야 한다. 그래서 서울책보고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책문화를 높이 경험과 결합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 거다”고 자신했다.

헌책방 사장들은 시의 팝업스토어 구상이 현실성 떨어지는 장밋빛 계획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씨는 “서울책보고 팝업스토어는 경의선 책거리 만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거다”며 “헌책방은 집집마다 책이 다른데 독립서점은 다 같은 새책이다. 출판사에서 받은 같은 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놔 봐야 새로운 게 뭐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씨는 “최근 어떤 새책방에서 ‘인생샷은 찍어가셔도 책샷은 찍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봤다”며 “거기도 우리가 똑같은 거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하고 책을 안 산다”고 토로했다.

노 씨는 “새책들은 도서정가제 때문에 할인 제한이 들어가 팝업스토어 행사 성공할 수 없다”며 “또 인터넷으로 사면 10%를 싸게 해준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몰릴진 몰라도 책 판매는 안 될 거다”고 예상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고립·은둔 없는 도시로의 첫걸음”

‘외로움 없는 서울’ 업무협약 체결
‘외로움안녕120’으로 24시간 상담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일 열린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오전 서울특별시복지재단, 9개 기업·단체와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와 복지재단, 9개 기업·단체는 ▲서울시민 외로움 예방 협력망 구축 ▲고립·은둔가구 발굴·지원 협력 체계 마련 ▲외로움·고립·은둔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교보문고, 당근마켓 등은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제별 다양한 모임을 구성·활성화하고 챗봇지행

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풀무원식품과 대상은 외롭고 고립된

시민이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는 ‘서울 마음편의점’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식료품을 지원한다.

hy는 사회적 고립·은둔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레시매니저(건강음료 배달원)가 고립·은둔가구를 찾아내 도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고립·은둔가구 이용이 많은 생활밀착 업체인 BGF리테일, GS리테일, 우아한형제들, 한국빨래방협회와 24시간 외로움 관련 상담이 가능한 ‘외로움안녕120’을 홍보하고, 고립·은둔가구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현정 기자

평택,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정장선 시장, 재난대책본부 긴급 소집

평택시는 1일 폭설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지난 11월 27일부터~28일까지 양일간 누적 적설량 39cm로 기록

적인 폭설이 내렸으며 1일 현재 이로 인하여 가집계된 피해액만 농업피해 299억원, 축산피해 238억 원 등 500억 원 이상이며, 추가적인 피해집계가 예상된다.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시설, 공장, 소상공인 등 650여 건의 사유재산 피해와 가로수 전도 등 600건, 야외체육시설 4건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공무원 AI 활용 본격화... 행정 효율성 UP

서울시, 175명 신기술 이용료 지원

지원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는 20개 부서와 175명의 직원에게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했다. 인공

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에는 1802명이 참여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AI 기술을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번역,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도왔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0 | 해질 / 17:14

12월 3일 (화)
음력 : 11월 3일

수도권 날씨
-4 ~ -3°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6/3, 동두천 -6/3, 가평 -6/4, 파주 -7/3, 서울 -4/3, 양평 -5/3, 인천 -4/4, 수원 -3/3, 용인 -3/3, 평택 -4/4, 백령도 -1/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대만 무기 판매에... 中 “단호한 조치로 반격할 것”
▲“뺑집 열었다”... 식량난 속 가자지구 뺑 사려는 인파에 3명 압사 /사진 뉴시스

▲우크라이나 “북한, 러시아에 장거리 포 100문 전달”
▲일본, 2일부터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 ‘마이너 보험증’ 전환



▲러 ‘시베리아 힘’ 연결 중국 가스관 개통... 年 공급량 380억㎥
▲독일 폴크스바겐 노동자들, 경고 파업 돌입 예고 /사진 뉴시스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